

신안군 맹그로브 프로젝트...탄소중립·소득창출 기대

타당성 조사 결과 전국 유일 비금·자은·임자도 등 서식 최적지 확인 생태 관리 방안 수립...맹그로브 지속 식재 탄소배출권 판매 등 추진

신안군이 독특한 경리지구 용수로가 전국 유일한 맹그로브 적응 가능한 갯벌 환경으로 비금도·자은도·임자도 등 다수 지역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맹그로브 도입 가능 지역을 선정하고 생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척지 내 독특한 경리지구 용수로가 기수역 지형을 형성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맹그로브가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갯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안군 갯벌의 물리적 구조와 바닷물의 환경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맹그로브 식재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비금도, 자은도, 임자도를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각각 100만 본 이상의 맹그로브를 식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맹그로브 적응 가능 곳은 ▲민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갯벌 ▲백조사리 때 최고 수위에서 갯

벌 바닥까지의 깊이가 1.8m 이내인 곳 ▲겨울철(1월 20일-2월 10일) 바닷물 표층 수온이 10℃ 이상 유지되는 갯벌환경으로 신안군 내 다수의 지역이 맹그로브 식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이 분석한 신안 부근 갯골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동근 맹그로브 도입 후보지 4곳이 선정되었으며 이 지역의 민물 유입 지역의 염분농도 1.03~1.30%와 바닷물 유입 지역의 염분농도 3.01~3.04%로서 모두 맹그로브 생육에 매우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안 경리지구 용수로는 갯벌에 충분한 민물을 공급하며 자연하천의 기수역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맹그로브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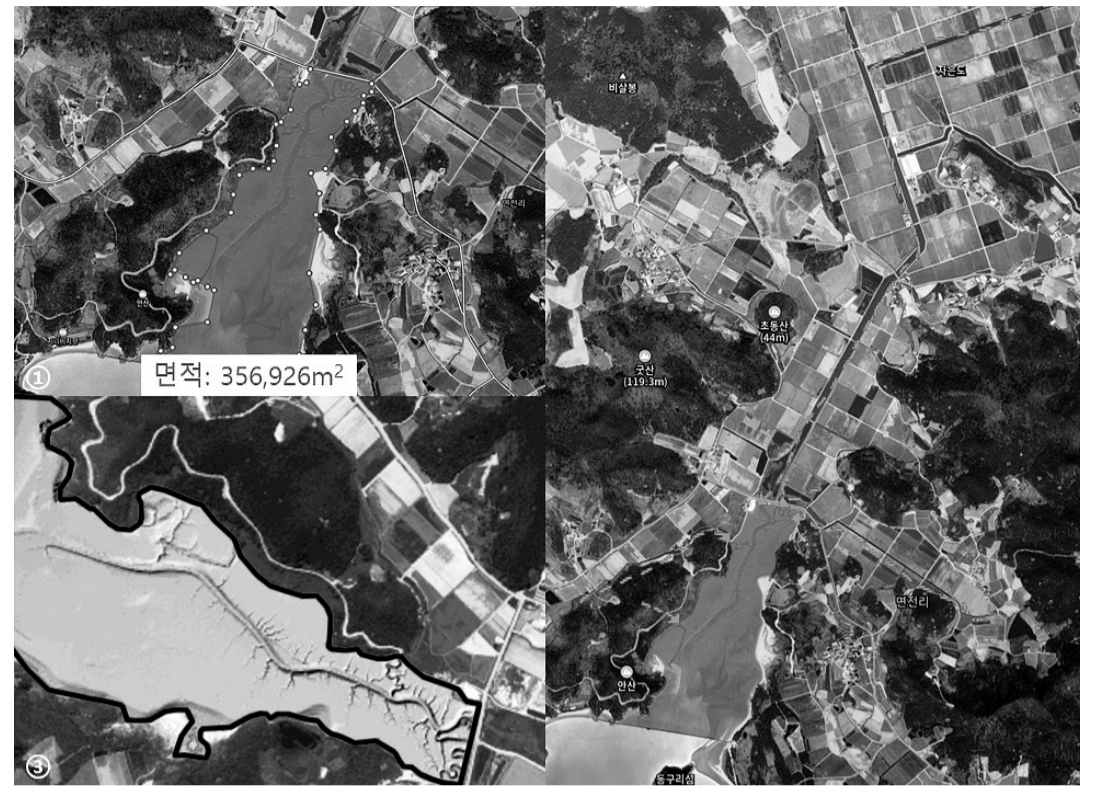
이러한 용수로 시스템은 농업용수와 생태계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맹그로브 생육을 돕는 환경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근맹그로브 식재지는 생육 기간 동안 70%의

? 맹그로브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며 뿌리와 가지는 파도를 완화·분산시켜 해안선 침식을 보호하는 완충역할로 인공방파제보다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천연 방파역할과 생물 서식지 등 다목적 역할을 하는 나무로서 서식 환경이 중요하다. 이에 신안군이 맹그로브 환경 조성 최적지로 분석되면서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맹그로브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시간은 물이 없는 곳이며 30%의 시간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환경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충족하는 갯벌의 물리적 지형구조는 조금 때는 밀물이 차오르지 않으나, 백조사리 때는 최대 수위로부터 갯벌 바닥까지 깊이가 1.8m 이내인 갯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맹그로브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블루카본으로서 맹그로브의 탄소배출권을 판매,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자은면 동근맹그로브 조성 환경 최적지(검은 선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보물 지정 61년만에 국보 된다

신라시대 적인선사 부도탑 국가문화유산 승격 지정 예고

곡성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지난달 3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 이는 적인선사탑이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래 61년만이다.

곡성군의 최초 국보가 될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동리산문을 개산한 적인선사 해철의 부도탑으로 신라 경문왕으로부터 시호는 적인, 탑호는 조륜정정을 받았다.

적인선사탑은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건립한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의 부도탑으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되어 있다.

탑신석 각 면 좌우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 등 목부재를 모각하였으며, 문비와 사천왕상 등을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해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육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당대 최고의 석공이 시공을 했을 것으로 추정돼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태안사 적인선사탑비 비문에 적인선사와 탑의 건립(861년)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알 수 있어 석조미술의 편년 기준작품과 함께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가구식 기단 주변에 4개의 주초석이 현존, 신라시대 건립된 승탑 중에서 유일하게 탑전(塔殿) 시설을 갖추고, 개산조에 대한 예불행위가 있었다는 신앙적 행위의 구체적 사례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30일간의 예고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군 최초 국보가 지정 예고된 만큼 긴 시간 동안 국보 승격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모든 군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군 문화유산이 지역을 넘어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영광군 65세 이상 어르신 올해부터 버스 무료

영광군이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대 보장을 위해 무료 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영광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복지 시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영광군은 시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얻어본 카드 발급받은 어르신들은 앞으로 농어촌버스를 횡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는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 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광 관내를 운행하는 합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인근 지자체 버스는 무료로 탑승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주민과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어르신은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얻어본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가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보성군은 지난 27일 (주)혜담과 보성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볼링장 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혜담, 보성군 커뮤니티센터 볼링장 기부채납

보성군이 지난달 27일 (주)혜담과 보성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볼링장 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혜담이 민간투자자로 설치하는 시설은 14레인 규모의 볼링장(1,163㎡)과 부속 휴게실(130㎡), 롤러 장비 대여점 및 매점(61㎡) 등이다.

운영 방식은 볼링장 시설 등의 공사 후 준공시설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기부채납 한 뒤 투자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 시설 제공과 동시에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이룩해 됐다고 밝혔다.

(주)혜담은 지역 체육회 및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인근 학교의 체육수업과 방과 후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과 볼링동호회 활성화 등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은 볼링장 등 여가 시설이 부족해 군민들이 타지로 이동해 생활체육 활동을 즐겼으나,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관내에서 손쉽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군민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순항 중이며 지하 2층, 지상 7층, 전체면적 1만 6158㎡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해남미소 설맞이 기획전 선물세트 최대 46% 할인

해남군이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설맞이 기획전 기획전을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군의 특별 지원금 할인을 통해 주요 판매 품목에 대해 최대 46%까지 할인을 한다.

할인가격 상품과 함께 선물 세트, 설 명품 꾸러미 세트 등 고객들의 선호에 맞춰 다양한 금액대로 알차게 꾸렸다. 이와 함께 해남미소에서는 매일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해 소비 촉진을 나가고 있다.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기획전에 이어 현재는 완제품 김치를 10% 할인하는 명품김치전을 펼치고 있다.

매월 1~3일 운영되는 해남정미소 행사는 갓 도정된 맛있는 쌀을 구입할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해남미소 응원 댓글, 해시태그 달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설 명절 행사 기간 중 구매 금액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왕, 행운왕 이벤트도 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내외 위기 상황에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해남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나주시가 인재육성, 희망나눔, 고향사랑 등 3개 부문 고객 기부자들의 고귀한 가치를 영구히 기리기 위해 시청사 로비에 '기부 명예의 전당'을 제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청사 로비에 '기부 명예의 전당' 제막

고액 기부자 186명 첫 헌액

나주시가 나눔을 통해 지역 발전과 온정 확산에 앞장선 기부자들의 고귀한 가치를 명예의 전당에서 영구히 기린다.

나주시는 시청사 1층 로비에 최근 '기부 명예의 전당'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청사 로비 중앙계단 벽면에 설치한 기부 명예의 전당은 '인재육성', '희망나눔', '고향사랑' 등 3개 부문의 기부자 명단으로 채워진다.

기부 명예의 전당은 "각계각층의 나눔과 기부의 가치를 기리고 더 따뜻한 나주의 미래를 밝히는 발자취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운영태 시장의 제안으로 조성됐다.

개인 기부자는 5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헌액 자격이 주어지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2년마다 진행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헌액판에 새겨 영구적으로 보존할 방침이다. 헌액판은 총 984개로 제막식을 통해 기부자 186명을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액했다.

장학사업과 나주시민회관 기부채납 등 고향 발전과 인재 육성에 남달랐던 금하장학재단 설립자인 고(故) 서상록 회장과 '한 편의 세금이라 고향에 납부하겠다'며 법인 주소를 나주에 두고 장학 사업을 펼쳤던 대신송촌문화재단 고(故) 양재봉 회장 헌액판도 명예의 전당에 모셨다.

헌액 대상자는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위원회는 시의원, 기관·단체 대표, 나주 역사에 조예가 깊은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했다.

개인 기부자는 5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헌액 자격이 주어지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2년마다 진행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광양시, 난임부부에 교통비 최대 20만원 지원

새해 최우선 신규사업 선정

광양시가 다른 지역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에 교통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는 임신·출산장려 시책 발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난임부부 지원이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광양시는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

고 시술 접근성은 향상하기 위한 해당 지원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로, 2025년 시술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15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시술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 종료 3개월 이내에 교통비 신청서, 시술 확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